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가족 종교화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 예배,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해온 한국 문화 속에서 가족 중심의 종교생활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은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넘버즈 214호, 231호 참조).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가족 종교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기독교인'인 비율은 배우자 82%, 자녀 79%로 기독교 종교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태신앙인 비율은 기독교 청소년의 58%, 20~30대 청년의 54%로, 저연령일수록 부모의 신앙이 곧 자신의 신앙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모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하게 보인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 신앙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 한편으로 가족 종교화 환경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려와 대안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종교화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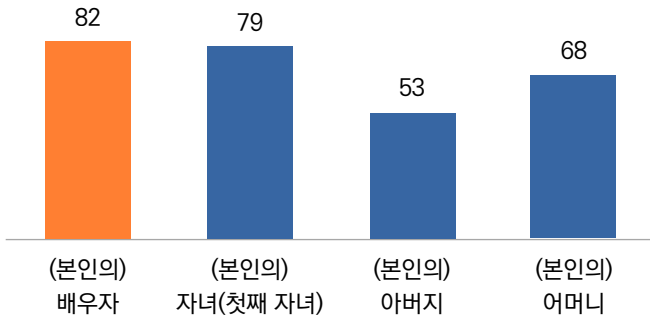
구 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1000\text{명 조사의 경우})$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3일 (총 11일간)	2024년 5월 23일 ~ 6월 3일 (총 1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초기 신앙 형성] 어머니가 기독교인 경우, 아버지보다 더 많다!

- 현재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배우자'가 82%로 대부분 부부간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고, '자녀' 또한 79%로 높은 편이었다.
- 한편 부모의 종교를 보면 '어머니'(68%)가 기독교인인 경우가 '아버지'(53%)보다 더 많아, 어머니를 통해 신앙이 전수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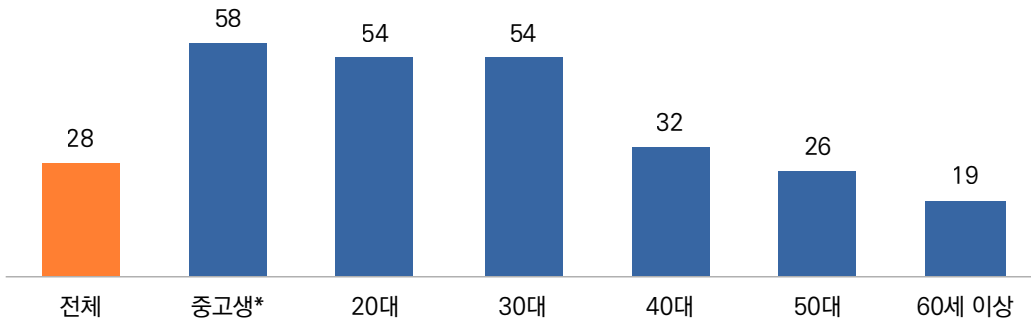
[그림] 가족 구성원의 종교가 '기독교인'인 비율 (출석교인, %)



중고생 모태신앙인 58%,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 현재 교회 출석자의 모태신앙인 비율을 보면 전체 기독교인 기준으로는 10명 중 3명 정도였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중고생'이 58%로 가장 높고, 20대 54%, 30대 54%로 젊은 층에서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32%, 50대 26%, 60세 이상 19%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모태신앙 비율 (출석교인,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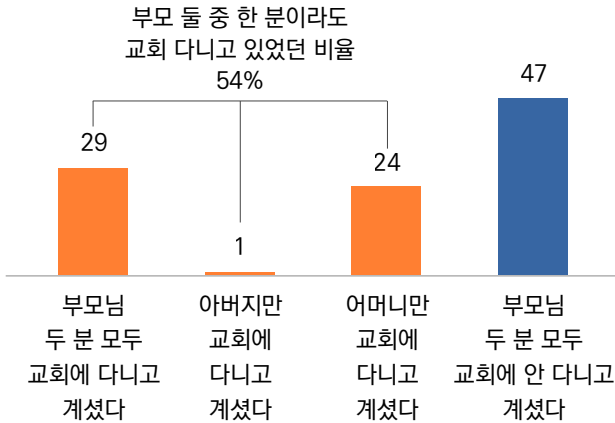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한국교회 트렌드(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2023.09. (교회 출석 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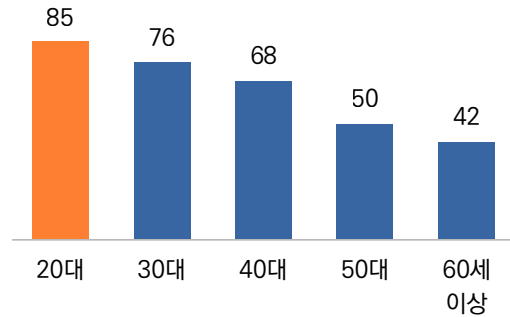
20~30대 대부분, 첫 교회 출석 시 부모 둘 중 한 분은 교회 다녔다!

- 처음 교회에 나간 시기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지를 묻은 결과, '부모 둘 중 한 분이라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85%, 30대 76%로 20~30대의 대부분은 첫 교회 출석시 부모 둘 중 한 분은 교회 출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첫 출석 시 부모님의 신앙 여부 (출석교인, %)



[그림] '부모 둘 중 한 분이라도 교회 다니고 있었다' 비율 (출석교인,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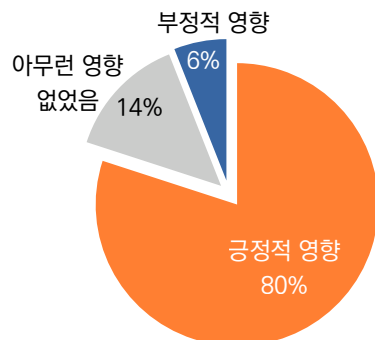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2

[자녀의 신앙 형성 과정에서의 부모의 영향] 어릴 적 부모와의 신앙생활, 10명 중 8명 '신앙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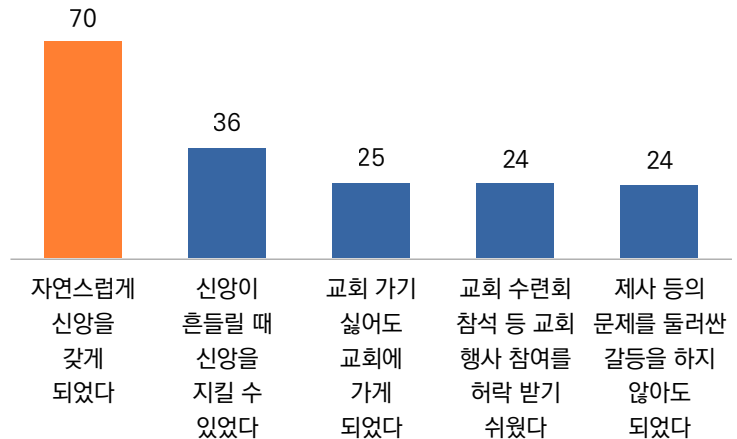
- 어린시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자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80%가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14%, '부정적 영향'은 6%에 불과해, 대부분은 부모와의 신앙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이러한 가족 중심 신앙생활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를 꼽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36%, '교회에 가기 싫어도 교회에 가게 되었다' 2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어린시절 부모님과 신앙생활한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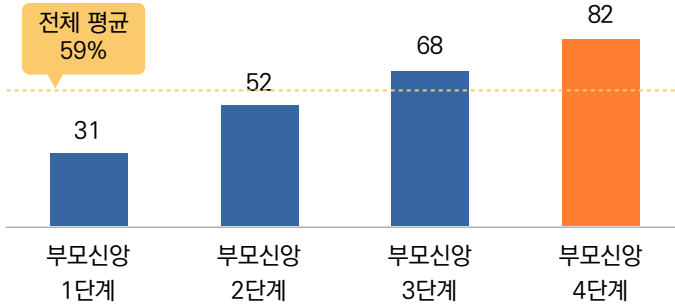
[그림]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긍정적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1+2순위, 상위 5개, %)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 이번에는 부모의 신앙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회 출석률(주일 학생예배 '자주 참석한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부모 신앙이 가장 약한 1단계인 경우 자녀의 주일예배 '자주 참석' 비율은 31%에 불과했으나, 4단계(82%)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신앙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부모 신앙단계별 자녀의 주일예배 '자주 참석한다'* 비율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한국IFCJ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 (5세 이상~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4점 척도

Note) 부모 신앙단 측정 질문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배워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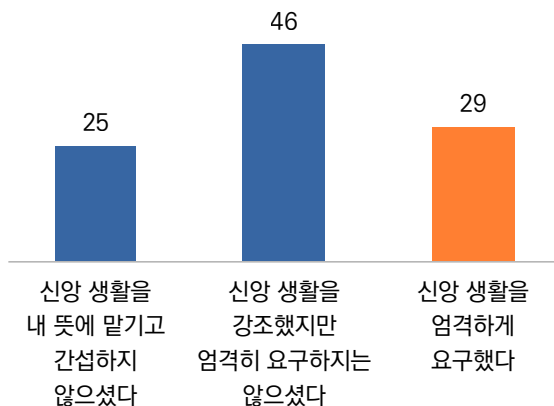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다.

4단계 :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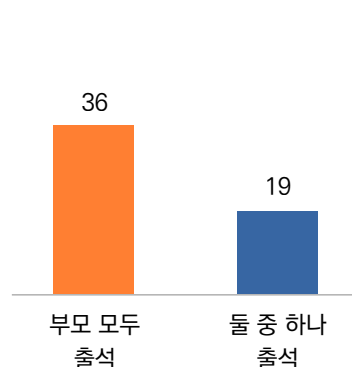
부모 모두 교회 다닌 경우, 자녀에게 '더 엄격한 신앙생활 요구' 경향 보여!

- 학창시절 부모님의 신앙교육 태도를 살펴본 결과, '신앙생활을 강조했지만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으셨다'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했다' 29%, '신앙생활을 내 뜻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으셨다' 25%로 나타났다.
- 다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한 비율은 부모가 모두 교회에 다닌 경우 36%로, 부모 중 한명만 교회에 다닌 경우(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부모님의 신앙교육관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



[그림] 부모 출석별 '신앙 생활 엄격히 요구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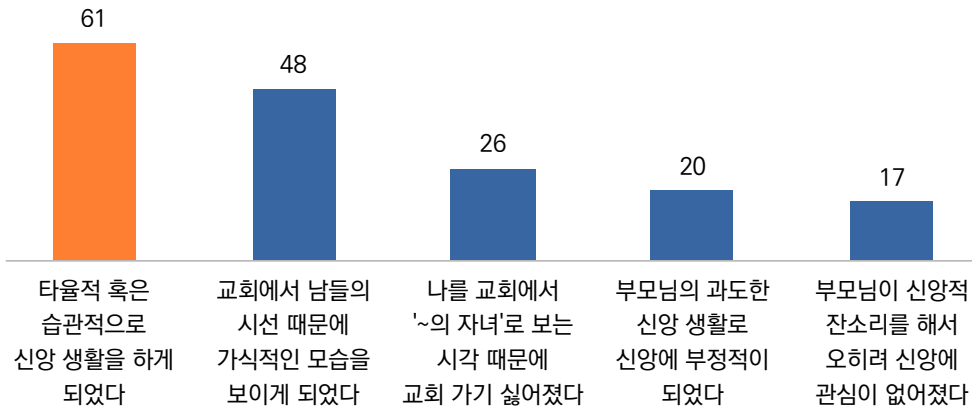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부작용, '타율적/습관적인 신앙생활'!

-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우, 부정적 영향으로는 '타율적 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회에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48%, '나는 교회에서 ~의 자녀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졌다' 26% 등의 순이었다.

[그림]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부정적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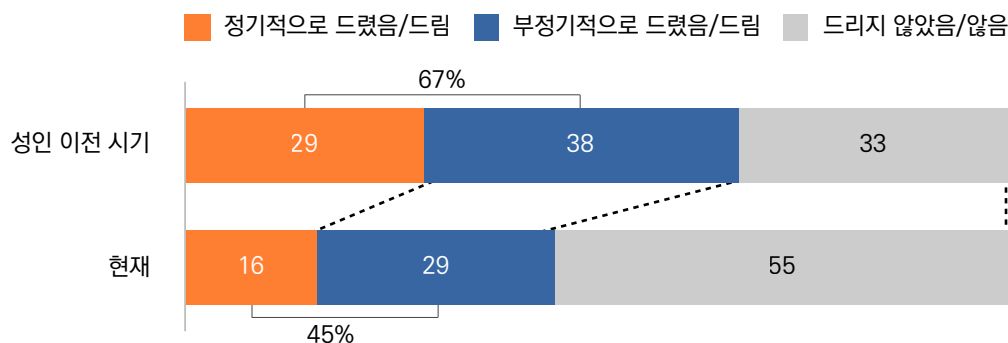
03

[가정예배와 신앙 계승]

'정기적' 가정예배, 성인 이전 29%→현재 16%로 크게 감소

- 성인 이전 시기와 현재의 '정기적' 가정예배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성인 이전 시기'는 29%인 반면 현재는 16%로 나타나 정기적 가정예배 경험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정기적·부정기적 예배를 모두 포함한 가정예배 경험률 역시 성인 이전에는 67%였으나 현재는 45%로 줄어,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정예배 실천이 크게 감소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성인 이전 시기 vs 현재' 가정예배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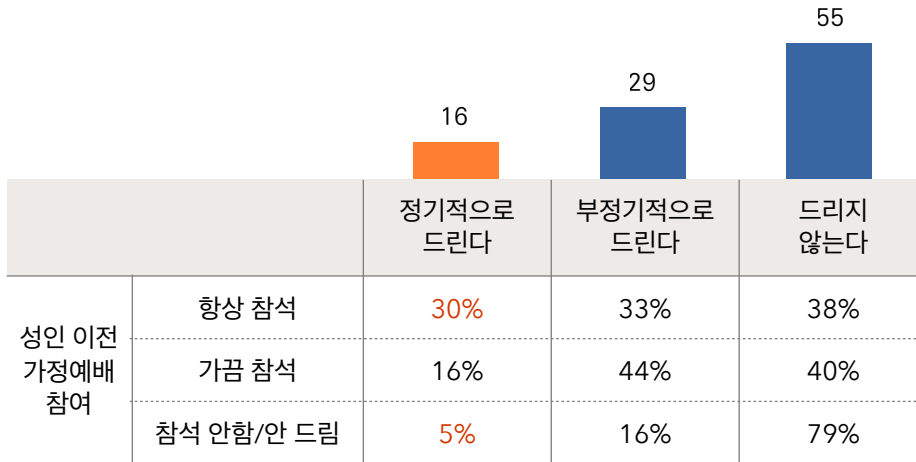


*'성인 이전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대상, '현재'는 전체 응답자 대상

어릴 적 가정예배 드린 자가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높아!

- 현재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성인 이전 가정예배에 '항상 참석자'인 경우 30%로 '참석하지 않은 자'(5%)보다 훨씬 높아 어린 시절 가정예배 실천이 현재 가정예배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 이는 현재 3040세대의 가정예배가 다음세대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한국교회에까지 연결되는 지표라 하겠다.

[그림] 성인 이전 가정예배 참여별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출석교인, %)



출생순위가 낮은 자녀일수록 신앙 계승에 대한 부모 확신 낮아져!

-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의 신앙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부모에게 묻은 결과,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 안팎에 그쳤다.
- 출생 순위별로 살펴보면, 출생 순위가 낮은 자녀일수록 신앙 계승이 잘 안 되거나 확신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자녀의 신앙 계승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미성년 자녀의 신앙 계승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 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은 잘 못할 것 같다 +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 잘 모르겠다
첫째 미성년 자녀	20%	48%	32%
둘째 미성년 자녀	19%	41%	39%
셋째 미성년 자녀	23%	3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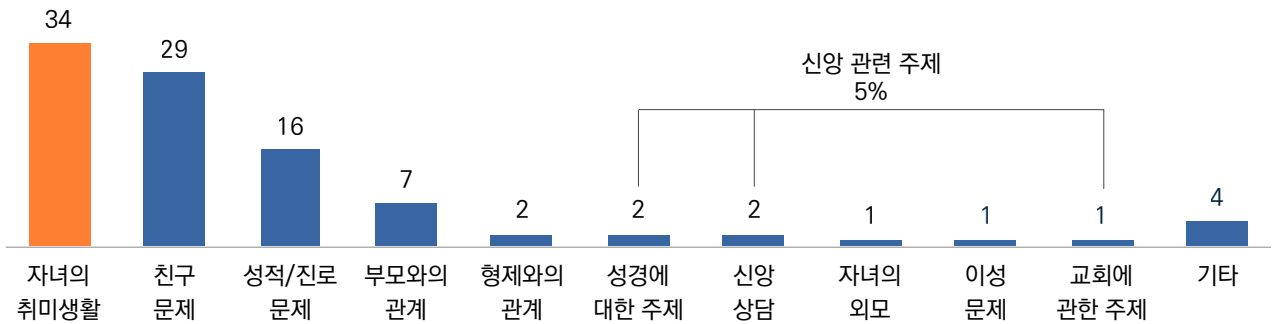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 2023.08. (전국 만 19~59세 남녀 중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전이며,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

04

[가정 신앙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평소 부모-자녀간 대화, 신앙 관련 주제는 5%에 불과!

- 학부모들에게 평소 자녀와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자녀의 취미 생활'이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 문제' 29%, '성적/진로 문제' 16% 등의 순이었다. 비신앙 주제가 전체 대화의 95%를 차지했고, '성경에 대한 주제', '신앙 상담' 등 신앙 관련 주제는 5%에 불과했다.

[그림] 자녀와의 대화 주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1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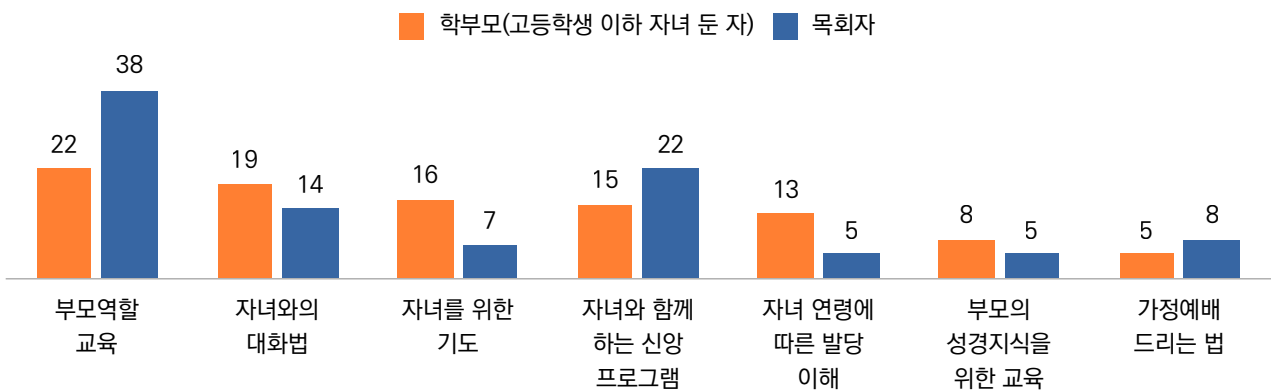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2024.01. (전국 교회 학부모 698명, 2024.01.05.~01.1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 주제, 부모역할 교육/자녀와의 대화법!

- 부모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 목회자와 학부모에게 각각 물었더니, 목회자의 경우 '부모 역할 교육'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학부모(고등학생 이하 자녀 둔 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아 목회자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모 교육의 우선 주제 (1순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2024.01. (전국 교회 학부모 698명, 담임목사 506명, 2024.01.05.~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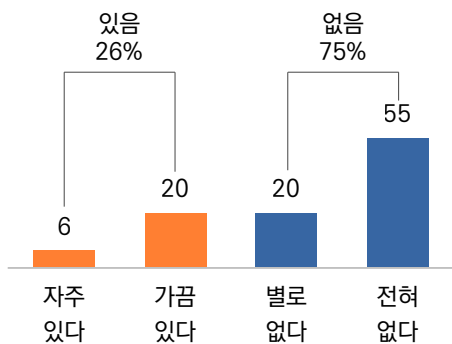
05

[가족 종교화 현상의 부정적 측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 4명 중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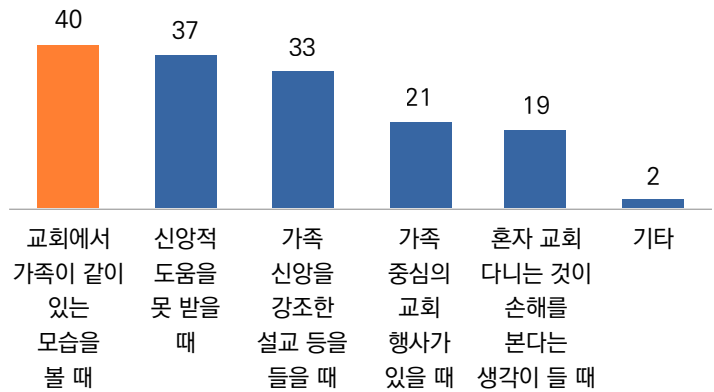
- 가족 중심 신앙생활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에서 비주류 소수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가족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비율은 전체의 8%로 10명 중 1명 정도 수준이었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가량인 53%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불편함을 느낀 상황(중복응답)은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40%, ‘신앙적 도움을 못 받을 때’ 37%,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 등을 들을 때’ 33% 등의 순이었다.
-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 4명 중 1명(26%)은 가족 중심적인 운영 환경 등으로 인해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의 소외감
(가족 중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그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의 불편함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자 기준, 중복응답, %)



이번호 요약

1.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 부모의 신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회 출석률('자주 참석한다' 기준)을 살펴본 결과, 부모 신앙 수준이 높아 질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어릴 적 가정예배 드린 자가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높아!

- 현재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성인 이전 가정예배에 '항상 참석'한 경우 30%로, '가끔 참석'(16%) 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자'(5%)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는 어린 시절 가정예배 실천이 현재 가정예배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3.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 주제, 부모역할 교육/자녀와의 대화법!

- 부모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를 목회자와 학부모에게 각각 물은 결과, 목회자는 '부모 역할 교육'(38%)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22%)을 1순위로 꼽아 목회자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신형섭 저, 두란노)

관련 성경 구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7절)

목회 적용점

한국교회 내 가족 종교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 심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이를 신앙 전수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배제 없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체계적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주일예배 참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릴 적 가정예배를 항상 드린 자가 드리지 않은 자보다 현재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모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자녀와 함께 하는 말씀 묵상, 일상 속 신앙 훈련 등 실천 가능한 내용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은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굳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도 기성세대와 나누는 교회내 소그룹 모임을 그대로 가정으로 갖고 들어오는 형태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단순히 잔소리 시간인 아닌 부모들도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녀도 삶을 나누는 형태의 소그룹을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교회 안에서 가족 중심 구조가 강화될수록 혈연 중심의 '씨족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자 교회 생활 하는 자들, 예컨대 이혼자, 한부모, 조손가족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소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에서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혈연이 아닌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